

교육실습 소감문

1. 교생실습 첫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교사라는 직업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교생실습을 통하여 얻게 되어 큰 설렘과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모두 안은 채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평소에 잘 입지 않았었던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한산중학교로 첫 출근을 하던 날, 너무나도 설레던 그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설레서 벅찬 마음에 발걸음이 절로 재촉되고 가벼워졌었다. 아직 스스로를 교사라 칭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도 앞섰지만, 걱정되는 만큼 주어진 한 달 동안 노력을 많이 하여 얻고 가는 것이 많아지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했다.

실습일 전부터 우리반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날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인사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만큼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많이 생각했었다. 31명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모두 신기하고 푹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며 첫 인사를 나누었다.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을 고려하여, 아이들과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지고 싶어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려 아이들 사진이 있는 명렬표를 받아 틈이 날 때마다 보며 외웠다.

2. 학급 지도

셋째날부터 우리 반 아이들의 아침조화와 종례를 도맡아 했다. 처음엔 떨려서 어떻게 교실에 들어가야 할까,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혹시나 공지사항을 빠트리고 말해주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말도 잘 들어주어서 재밌는 조종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청소지도를 할 때엔 청소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해주며 재미있게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중학생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반 안에서 혹시나 소외당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아이들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파악하려 노력했다. 활발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사실 해결해주고 돌아오지는 못하였다. 모르는 척 조금씩 그런 아이들에게 많이 다가가려 노력했고, 마지막 날 주는 편지에, 아이들이 자신의 성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의 말을 많이 써 주었다. 나중에 답임이 되었을 때 이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깊은 고민이 되었다.

3. 수업 참관 및 시연

또한, 셋째날부터 수업 참관을 실시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한문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도덕, 영어, 체육 등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해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다. 하루에 최소 4번 참관하였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역할로 책상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땐 그냥 지나쳤었던 수업의 여러 요소들을 자세히 살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의 도입은 어떻게 해야 저번시간과의 연계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이번 수업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아이들이 좀더 집중하고 듣는지, 수업 자료는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끝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실제 수업을 보니 그 다음주부터 있을 수업시연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둘째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시연에 들어갔다. 중학교 1학년 10시간과 중학교 3학년 10시간 수업을 하였다. 1학년은 4단원 '뜻과 뜻이 만나면'을 통하여, 부수의 의미를 아는 것과 회의의 원리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3학년은 27단원 '허풍대결'을 통하여, 현토하는 것을 알고 우화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하였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을 준비하기도 하고, 조별 활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어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업을 잘 진행하느냐 부족한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준비한 수업에는 '선생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와 같은 말을 하며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후에 교사가 되었을 때,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까 고민하였다. 수업이 어렵나 생각되어, 조별활동을 늘리고 수업 내용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조정하였다. 그리고 쉬운 내용을 질문하여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 발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력

을 하였지만, 아직 완벽하진 못했다. 후에 교사가 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공부 의욕이 생기게 하는 수업을 어떻게 할지 더욱 고민해봐야겠다.

또한,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같은 1학년이라도 반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그것을 잘 반영하여 반마다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일에 수업의 좋았던 점과 안좋았던 점을 써달라고 하여 받아 보았다. 좋았던 점을 볼 때에는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고, 안좋았던 점을 볼 때에는 고쳐야 할 점을 알게되어 좋았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안좋았던 점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았던 점은 쓰지만 안좋았던 점은 쓰지 않고 제출한 아이들이 여럿이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기분을 생각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예쁘다는 것을 알아서 좋았다.

4. 교생실습이 끝나고

실습 마지막 날,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해주어서 눈물이 났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공지사항을 알려주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던 것 같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생으로 갔지만, 오히려 내가 알려주고 오는 것 보다 배우고 온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사실 마지막날에 눈물이 났던 것도 아이들과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때문인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었구나 하는 그런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마음이 예뻐보여서 인것도 컸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니, 조금은 세상에 의해서 바뀌고 무감각해진 감정들이 새록새록 심겨지고 반성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사란 참 보람있는 직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꿈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